

전통차 매력 속으로... 보성다향대축제 다음달 팡파르

3~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보성·하동, 중국·일본 등 차 문화관 운영
전통 다례시연·말차 격투·로스팅 체험 등 다채...9종 축제 통합대축제로

‘전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 주제로 열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다향대축제는 2024년~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는 보성군과 하동군, 중국·일본 등의 차 문화관을 운영해 아시아의 대표 차를 맛볼 수 있다. 전통 다례시연, 말차 격투, 차 로스팅 체

험, 차 음식 시식회와 대한황실가(家) 다구전 등을 마련해 국내 최고 차 문화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성군은 올해 보성다향대축제는 9종의 보성 대표 축제가 총 출몰하는 통합대축제로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보성다향대축제, 서면제보성소리축제,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마라톤, 요트), 일립산 철쭉문화행

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드론타이스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제47회 보성군민의 날은 5월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서면제보성소리축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과 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와 추모 공연, 명인·명창 고수 경연대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5월 4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풀, 하프, 10km, 5km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15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음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보

성울포살밭해변에서 2개(오피티미스트, 토파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의 레이스 경기를 진행한다. 일립산철쭉문화행사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근각지인 울치면 일립산에서 열린다. 철쭉 제례와 산림문화 행사, 숲속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제2회 데일리콘서트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보성역 일원에서 청년, 중장년,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콘서트다. 장르별 화려한 출연진과 무대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드론타이스는 5월 4일 데일리 콘서트 이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으로 나아갈 기틀을 만든 보성군 열선

루와 천년의 보성 차(茶)를 보여주는 빛의 향연을 펼친다.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도전골든벨, 경품 추첨,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 녹차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다향대축제를 통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보성차의 맛과 멋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올해 보성다향대축제가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첫주 21만명 ‘문전성시’

175m ‘스페이스 브릿지’ 명소로 4D 입체영상관 등 어린이에 인기

이달부터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에 일주일 새 21만명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개장 첫 주(1~7일) 관람객이 21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주말(6~7일) 이틀 동안에는 12만명이 국가정원을 찾았다. 국가정원에서는 지난해 정원박람회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정원의 특성은 살리면서 우주산업과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보충했다. 옛 ‘꿈의 다리’에 마련한 175m ‘스페이스 브릿지’는 국가정원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스페이스 브릿지를 건너면 5000평(1만6529㎡) 규모 화훼 공간 ‘스페이스 허브’가 펼쳐진다. 개막일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애니벤저스’로 변신해 이곳에서 행진했다. 스페이스 허브에는 전용 전망대로 마련했다. 국가정원에서는 야간 관람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 가든 투어’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관람객을 사로잡는 다양한 볼거리도 있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로 마련된 ‘스페이스 브릿지’를 주말에 찾은 관람객들이 조형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다. 도장 찍기 ‘작은 정원사의 모험’, ‘유미의 세포들 더무비’, 4D 입체영상관, ‘시크릿 어드벤처’ 등이 어린이 관람객으로부터 인기가. 연중 운영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은 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야심 차게 도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더불어 화려한 사계절 화훼, 문화행사로 더욱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며 “이제는 순천으로 오셔서 ‘정원 문화도시’를 느끼고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전통시장서 소자본 창업기회

광양매일시장·5일시장 등 15개 점포...15일까지 입점자 모집

광양시가 오는 15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4개소의 빈점포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 대상 점포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마친 광양매일시장 신규점포 9개소와 광양5일시장 2개소, 옥곡5일시장 3개소, 중마시장 1개소로 총 15개소이다. 시는 그동안 빈점포 모집업종에 대한 시장별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점포별 업종을 선정했으며, 광양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모집업종 및 자격요건, 심사방법을 논의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세대별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의 이중 수혜 방지와 다양한 세대의 입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광양시 소재 공설시장 기 입점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광양시 투자경제과 시장관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장 사용허가 심사 배정표에 따라 5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평가 점수와 2차 심사위원의 심층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입점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4월까지 입점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개랭이 마을서 매력 만점 ‘춘캉스’

1박2일 투어 매주 토~일 5회 운영...자연밥상·황토방 등 체험



순천시가 지난 6~7일 별량면 개랭이 마을에서 진행한 ‘춘캉스’ 참가자들이 자연밥상을 체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개랭이 마을에서 농촌의 매력을 흠뻑 즐기는 ‘춘캉스’가 펼쳐진다. 순천시는 시티투어-기획투어의 하나로 1박 2일 동안 시골마을을 체험하는 ‘춘캉스’ 투어(감성순천 여유순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춘캉스’ (농촌+바캉스)는 이달 21일까지, 5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다섯 차례 운영한다. 지난 주말(6~7일) 진행된 춘캉스 여행에는 서울 2명을 포함해 각지에서 모인 9명이 참여했다. 이 여행은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개랭이 마을’에서 할 수 있다. 숙박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 모든 체험 자원을 갖춘 곳이다. 이곳에서는 순천의 대표 특산물인 고들빼기와 흥갓이 주로 나고 있다. 개랭이 마을에서는 고들빼기김치를 담그고, 고들빼기 자연밥상 등을 즐길 수 있다. 황토방과 편

백방 등에서 자며 시골에서의 여유로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농촌 체험뿐 아니라 순천의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도 둘러본다. 개랭이정원인 낙안이씨고택과 화포해변 등 순천의 구석구석을 간다. ‘춘캉스’ 여행 경비는 탐승료 1인당 1만원과 식비 3만원, 체험료 1만7000원, 숙박비 3만원 등 8만7000원이 든다. 순천시투어 이용요금과 운영 구간 등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예약 방법은 순천시 바로예약(suncheon.go.kr/ye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섬을 즐길 수 있는 시골에서의 휴양하고 싶으면 춘캉스 투어가 딱”이라며 “시골 경치 속에서 느낌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춘캉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GS칼텍스 ‘무사고·무재해’ 상반기 대정비 마무리

1137억 투입·연인원 6만2천명 추락 감지 에어백 등 장비 도입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올해 상반기 대정비 작업(TA)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말부터 총 5개 팀 14개 공장에서 대정비 작업을 벌였다. 총 1137억원을 투입해 하루 평균 1550명, 연인원 6만2000명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비 대상 공정은 이달 초부터 차례대로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번 작업에서는 70~80% 이상 비중으로 지역 물품을 사고, 지역민을 채용해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GS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 2210억원을 포함한 3200억원이 정비에 투입됐다. GS칼텍스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일직, 작업 순서, 예산 등 부문별로 평균 20개월 정도 작업을 준비해왔다.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은 공정별로 4~5년 주기로 진행된다. 이번 작업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대거 투입해 작업장 안전 확보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경고음을 울리게 했다. 또 모바일 CCTV를 활용해 감시 범위를 넓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작업자들이 견인 장치를 활용해 대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밀폐된 공간에는 스마트 가스 감지 설비를 설치해 유해 가스 잔존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자의 추락을 센서를 통해 감지하면 에어백이 자동으로 펼쳐져 작업자를 보호하는 ‘추락보호 안전조끼’도 시범 도입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최고 안전환경 책임자)는 “그간의 경험과 선진사례를 적용해 사람, 설비,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안전 보호 조치를 선

제적으로 실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 임직원과 여수공장 구성원들이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무사고, 무재해로 올해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정비 시작에 앞서 GS칼텍스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75개 협력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과 함께 ‘GS칼텍스 여수공장 무사고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시간내 수거 안하면 견인료 청구

여수시가 15일부터 인도나 주박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한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차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 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1대당 1만5000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 담당자가 신고 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 및 이용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 교육

운동·식생활·금주 등 자기관리 능력 향상 수칙 안내

구례군 보건의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일 구례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파트너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가는 이날 어르신 7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한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안내했다. 치매 예방수칙 333은 즐겨야 하는 3권, 참아야

하는 3금, 챙겨야 하는 3행을 말한다. 3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매일 읽고 쓰기, 3금은 술 적게 마시기, 담배 피우지 않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받기이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바로 알고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